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699호 1판 (음력 1월 18일) 2018년 3월 5일 월요일

지방선거 D-100
신 4당체제 시험대

전국 3500여명 지역일꾼 선출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 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기사 3·4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두 3500여명의 '풀뿌리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 또 광주 서구갑과 영암·무안·신안 등 최소 전국 7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로, 문재인 정부의 중간성적표가 됨은 물론 선거 이후 정국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당과 야당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당의 분당과 중도통합 등으로 만들어진 '신(新) 4당 체제'의 시험무대가 된다.

지난 20대 총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헌정 사상 첫 '원내 4당 체제'가 형성돼 19대 대선을 치렀다. 하지만, 정치권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신 4당 체제'로 재편한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르게 되는 여당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기준 수도권 3석을 포함해 '9석+α', 제 1야당 한국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 등을 중심으로 '6석+α'를 1차 목표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수도권 1~2곳을 포함해 최대 5명의 시도지사 당선, 그리고 민평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최소 1석 이상의 시도지사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여야 모두 이 같은 목표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낸다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생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은 정치적 기반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면서 또다시 정계개편의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선거를 100일 앞두고 주요 지역에서 여야의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는 여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도가 펼쳐지고 있지만 남은 100일 동안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현재로서는 결과를 단언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집권 초기보다는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 남북관계, 개헌, 야권의 선거연대 여부, 적폐청산, 경제 상황 등을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고 있다. 또 광주·전남에서는 공천 후유증과 민주당·민평당의 관계 설정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정선거 앞장" 광주일보 주최 '제53회 3·1절 기념 전국 마라톤대회'가 열린 4일,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입지자들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 깨끗한 선거·공정한 선거·정책 선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영호 남구청장,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마라톤대회 주최측인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병훈 전 문재인 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 강기정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10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1정신 기리며 금남로 달렸다

관련기사 7·18·19·20면

제53회 광주일보 3·1마라톤
전국 2000여 명 마라토너 참가
문화전당~영산강 힘찬 레이스
풀코스 김보건·이정숙 남녀 우승

새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화를 부르짖던 금남로 분수대 광장에서 2000여 마라토너의 질주가 시작됐다.

광주일보가 주최한 제53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전국에서 2000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마라톤 참가자들은 한국 민주화의 성지인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과 금남로로 이어지는 도심을 관통해 달리며 역사의 현장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꼈고, 이제 막 봄 기운이 움튼 영산강변을 질주하며 남도의 풍광을 만끽했다.

궂은 날씨를 보였던 예년에 비해 이번 대회는 영상 8~9도를 웃도는 등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여 참가자들은 최상의 몸상태로 달릴 수 있었다.

'호남 마라톤의 정통'인 3·1절 마라톤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박지원·박주선·장병완·이개호 국회의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김주용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대회사에서 "99돌을 맞은 3·1절 기념해 열린 이번 대회를 잊지 않고 찾아준 전국의 마라토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호남 마라톤의 정통을 잇는 대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는 오전 8시 30분 5·18민주광장을 출발해 승촌보를 거쳐 상무시민공원까지의 돌아오는 풀코스(42.195㎞)부터 시작됐다. 서창교에서 돌아오는 하프코스는 8시 35분부터 진행됐다. 풀코스 우승의 영광은 남자부문에서는 김보건(30)씨가, 여자부문은 이정숙(53)씨가 차지했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타이어, 끝내 법정관리 가나

채권단, 더블스타에 매각 추진
노조 강력 반발에 쉽지 않을 듯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 매각 외 대안이 없다는 게 채권단 입장으로,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정관리'라는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14면〉

노조의 거센 반발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호타이어 향후 처리방안'을 설명하면서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로부터 6463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유치해 경영권을 넘기는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더블스타측은 "금호타이어 노조가 반대하면 자본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산업은행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공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3일 광주공장 인근 송신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로 작성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공식 폐기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외매각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 김지을기자 dok2000@

정의용·서훈 등 대북 특사단 친서 들고 오늘 방북

비핵화·북미대화·남북교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5일 오후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한다. 비핵화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평양을 방문하는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며 "특사단 방북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사절단은 정 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으로 꾸려졌으며, 실무진 5명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이다.

윤 수석은 "특사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진행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방북 귀국 보고를 마친 뒤 곧바로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일본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